##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#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작성부서 : 무역통상실 작성일 : 2014.9.26 작성자 : 배찬권 전화: 1208 연락처:

# I. 개 요

1. 일시 : 2014. 9. 26. (16:00~18:00)

2. **장소** : 11층 회의실

3. 발표자 : 산업연구원 김재덕 박사, 산업연구원 김혁중 초청연구원

# 4. 참석자

김영귀(KIEP, 지역무역협정팀장)

배찬권(KIEP, 무역투자정책팀장)

김종덕(KIEP, 다자통상팀장)

이승래(KIEP, 부연구위원)

황운중(KIEP. 부연구위원)

현혜정(경희대, 조교수)

장용준(경희대, 조교수)

김혁황(KIEP, 전문연구원)

박혜리(KIEP, 전문연구원)

김민성(KIEP, 전문연구원)

이준원(KIEP, 연구원)

신민이(KIEP. 연구원)

이주미(KIEP, 연구원)

## 4. 제 목

-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와 활용 방법

KIED

# Ⅱ. 주요 논의 사항

## 1) 발제내용

- □ WIOD 관련 문헌 정리
- Timmer(2010) "WIOD:WORLD INPUT-OUTPUT DATABAS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s" World KLEMS
- Timmer, et al.(2014) "Incomes and Jobs in Global Production of Manufactures" World KLEMS
- Erik Dietzenbacher , Bart Los , Robert Stehrer , Marcel Timmer & Gaaitzen de Vries (2013) "The Construction of World Input-output Tables in the WIOD Project", Economic Systems Research, 25:1, 71-98
- □ WIOD의 주요 특성
- 공급사용표를 기반으로 구성
- 각국의 국민계정 상의 데이터를 포함
- 서비스 교역 자료를 포함
- 기타 사회경제(고용 및 자본 등) 및 환경(에너지, 환경오염, 천연자원 등) 관련 데이터를 포함
- □ WIOD 데이터 커버리지
- 27개 EU 국가와 기타 13개 주요국을 포함
- 35개 산업
- □ 다양한 세계투입산출표의 출처와 상호 비교
- WIOD: EU KLEMS 참여국의 주도로 구축되며, 40개 국가, 35개 산업, 1995-2011년의 자료를 포함
- Inter-Country IO model(ICIO): OECD가 구축하며 40개국, 18개

전문가풀 토의자료

- 산업, 1995, 2005, 2008, 2009년의 자료를 포함
- Asian International IO table: JETRO가 구축하며 아시아 주요 10개국과 76개 산업, 1995-2005년까지 5년 주기의 자료를 포함
- GTAP: 미 퍼듀대학이 제작하며 129개국, 57개 산업, 2004년과 2007년의 자료를 포함
- UNCTAD Eora GVC 데이터베이스: UNCTAD가 제작하며, 187개 국, 25-500개 산업, 1990-2010년 자료를 포함

# □ 국가 공급사용표의 구조

- 세계투입산출표(WIOT)의 기초가 되는 국가별 공급사용표와 국민계정, 기타 환경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의 구조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음.

		Supply	Intermediate use	Domestic final use	Total	
		product	industry	CIG		
country A	product		Intermediate use	Domestic final use	Exports	Total use by product
country A	industry	Domestic supply				Total output by industry
		Imports				
			Labour by type Capital by type Profit			
Total		Total supply by product	Total input by industry			21
			Energy			
			Air			
		8	Natura	al resources		I.

- 국가 A를 중심으로 국가별 공급사용표를 서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국가 A와 타국가간 공급사용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사용표를 구축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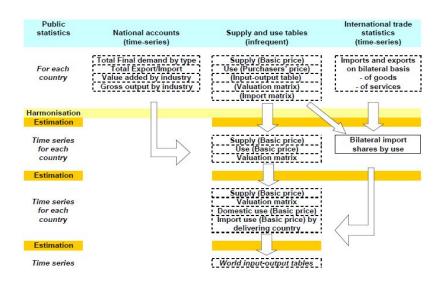
		Supply	Intermediate use	Domestic fina use	Expo	Exports to country			
		product	industry	CIG	B	Country	Total Use		
country A	product		Intermediate use of domestic output	Domestic fina use of domesti output		Exports to C	Total use of domestic output		
country B	product		Intermediate use of imports from B	Domestic fina use of imports from B		Re- exports	Total use of imports from B		
country C	product		Intermediate use of imports from C	Domestic fina use of imports from C	II RA	-	Total use of imports from C		
country A	industry	Domestic supply							
country B		Imports from B							
country C		Imports from C							
		Total supply	Gross value added						
			Gross output						

- 이상의 공급사용표를 국가별·산업별로 연결하여 세계투입산출표를 구축함.

		Country A Intermediate use industry	Country B Intermediate use industry	Country C Intermediate use industry	Country A Final domestic use (C, I, G)	Country B Final domestic use (C, I, G)	Country C Final domestic use (C, I, G)	Total output
country A	industry	Intermediate use of domestic output by A	Intermediate use by R	Intermediate use by C of imports from A	Final use of domestic output by A	Final use by B of imports from A	Final use by C of imports from A	Total output in A
country B	industry		Intermediate use of domestic output by B	Intermediate use by C of imports from B	Final use by A of imports from B	Final use of domestic output by B	Final use by C of imports from B	Total output in B
country C	industry	Intermediate use by A of imports from C	Intermediate use by B of imports from C	Intermediate use of domestic output by B	Final use by A of imports from C	Final use by B of imports from C	Final use of domestic output by C	Total output in C
	_	Gross value added	Gross value added	Gross value added				
		Total output in A	Total output in B	Total output in C				

- 지금까지의 WIOT 구축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.

전문가풀 토의자료



□ WIOT에서 부가가치 흐름의 사례: 스웨덴의 자동차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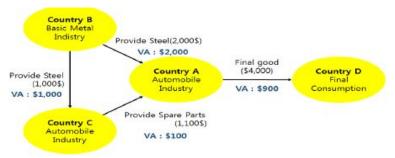
			Sw	ed	len		Γ	Ja	apa	an		Г	Sw	ed	еп	Ja	ıpa	ın	l	1	Tot					
		M	•••	5		C	M	***	S		C	M		5		C	Н	1	G	H	1	G	Н	1	G	
Sweden	Mining	•	٠	•	•	7		٠	1	٠	•	٠	٠	٠	٠	•		•	•	•	٠	•		•	٠	٠
			•		•	ł	٠		ı	•	•		•	•	•	•		•	•	•	٠	•	-	•	•	•
	Steel manuf	-	•	•	•	H			ı	•	•			•	•	•		•	•	•				•	•	•
			٠	•		ł	ŀ		ı	•	•	٠	•	•	•		٠	•	•	•			•	•	٠	
	Car manuf	•	×			٠	-	٠	٠		٠		•				-		-					•	•	
Japan	Mining	•	•	ં	•	3	ŀ	•	1	•	·	•	•	•	•	•		ै	•	•	•	•	•	*	•	•
		•	•	•	•		٠		ı	•	•					•		•	•		•	•	•	•	•	
	Steel manuf	4	4				ŀ		ı	•	•			•				•						•	•	•
		1.	•	•	•	•			ı	•	•	٠			•	•	٠	•	•	•		•		•	•	
	Car manuf		٠	•	٠	•			٧	٠.	•		•	•	٠	•		•	•		٠	•	•	•	•	•
USA	Mining	-	-	-	-	-	-			•	•	•	•	•	•	•		•	•		•	•		•	٠	•
		ŀ															•						•		•	•
	Steel manuf		٠			•		•	٠	•	٠	•	٠	•	•			٠	•		٠		•	•	٠	•
			•	•		4	٠		4	•		ŀ	•			•		•	•	•			-	•	•	
	Car manuf	•	•	•	•	4		•	4	•	•	ŀ	•		•	•		•	•			•		•	•	•
Value added		•	•	•	•	•		•	1	•	•	F	•	•	•											
Total		•		•	•	₹	•		ŧ	•	•	Ŷ	٠	•	•	_	US	m	ini	ng	re	ан	ire		_	
Employment		•	٠	•	•		٠	•		•	•	٠		•	1	_	US					,				
CO2 emissions																		-			_	_	_	_		

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본산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여
 수출을 위한 자동차를 생산, 스웨덴 노동력의 투입이 발생

- 스웨덴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일본산 철강 생산에 미국의 광물이 중간재로 투입, 일본 노동력의 투입이 발생
- 미국의 광물 생산을 위해 미국 노동력 투입이 발생

#### □ 총교역 통계 사용의 문제점

- 생산공정의 분절화 진전으로 총교역에서 중복계산의 문제가 증폭됨 (Grossman and Rossi-Hansberg, 2008).
- 총교역에는 중간재와 최종재가 서로 구별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의 원천을 파악할 수 없음.
-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체계가 필요함.
- 다음은 총수출액과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간의 차이를 예시함.



- □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을 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
- ICIO를 사용하여 총수출을 분해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음.
- Johnson and Noguera(2012)는 총수출로부터 Value-Added Content를 추출한 바 있음.
- Koopman, Wang and Wei(2014)는 이상 연구를 발전시켜 GTAP과 WIOD를 사용하여 총수출을 분해하였으나, 산업 수준의 분해 결과와 국가 수준의 분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.
- Wang, Wei and Zhu(2014)는 KWW의 문제점을 해결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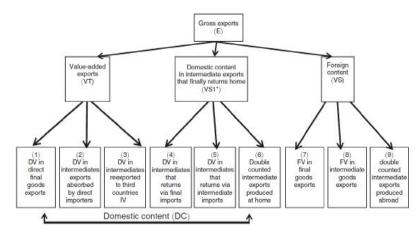
## 전문가풀 토의자료

## □ JN과 KWW의 총수출 분해식

- John and Noguera(2012) 방식

$$E_s = VT_s + DOM_s + FOR_s$$
  
Value-added Returned value-added Foreign value-added

- Koopman, Wang and Wei(2014)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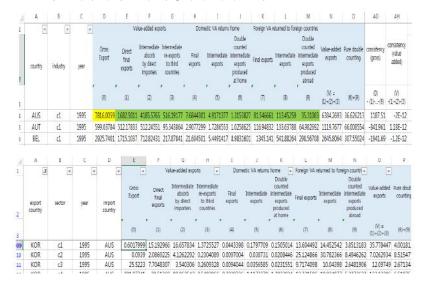


$$E_{s} = \underbrace{V_{s} \sum_{r \neq s}^{G} B_{ss} Y_{sr} + V_{s} \sum_{r \neq s}^{G} B_{sr} Y_{rr} + V_{s} \sum_{r \neq s}^{G} \sum_{t \neq s, r}^{G} B_{sr} Y_{r}}_{VT_{s}} + V_{s} \sum_{r \neq s}^{G} B_{sr} Y_{rs} + V_{s} \sum_{r \neq s}^{G} B_{sr} A_{rs} (I - A_{ss})^{-1} Y_{ss} + V_{s} \sum_{r \neq s}^{G} B_{sr} A_{rs} (I - A_{ss})^{-1} E_{s}} + \sum_{t \neq s}^{G} V_{t} B_{ts} \sum_{r \neq s}^{G} Y_{sr} + \sum_{t \neq s}^{G} V_{t} B_{ts} \sum_{r \neq s}^{G} A_{sr} (I - A_{rr})^{-1} Y_{rr} + \sum_{t \neq s}^{G} V_{t} B_{ts} \sum_{r \neq s}^{G} A_{sr} (I - A_{rr})^{-1} E_{s}}$$

- 이상의 식에 의해 총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중(VAX), 수출 중 해외생산 부가가치 비중(VS), 중복계산액의 비중을 구할 수 있음.
- GVC 참여 정도는 국내 중간재 수출 중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부가가치(VS1)와 국내 수출 중 해외생산 부가가치(VS)로 도출됨.

# □ KWW의 총수출 분해 결과의 문제점

- 산업 수준의 교역자료를 합산했을 때 양자 수준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총수출을 상회하는 불일치성 발생
- 전방연계와 후방연계 측정치의 차이 발생



- 이상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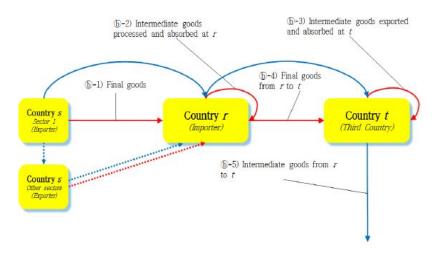


B국에서 A국으로의 총수출: 3100달러(부가가치 3100달러)

B국에서 A국으로 BM산업의 총수출: 2100달러(부가가치 전방연계 3000달러, 부가가치 후방연계 2000달러)

B국에서 D국으로 총수출: 0달러(부가가치 전방연계 3100달러, 부가가치 후방연계 3100달러)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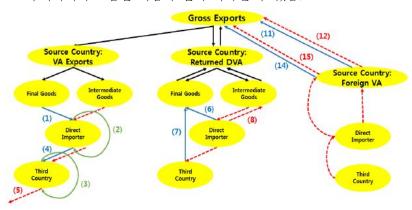
# □ WWZ의 총수출 분해 방법을 활용한 부가가치 수출 계산



- 이상 그림이 예시하는 부가가치의 흐름을 토대로 해외생산 부가가치에서 제3국의 기여를 고려하여 S국에서 R국으로의 총수출을 다음과 같이 분해함.

$$E_{s}^{r} = DVA_{s}^{r} + RVA_{s}^{r} + \underbrace{IVA_{s}^{r} + ThVA_{s}^{r}}_{FVA_{s}^{r}} + PDC_{s}^{r}$$

- 이상 식에 의해 도출되는 변수와 그 변수의 계산시 고려하는 부가가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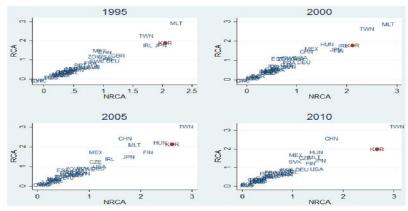


#### □ WWZ에 따른 한국의 총수출 분해 결과

- 부가가치 수출 비중(VAX)를 사용하여 RCA(NRCA)를 계산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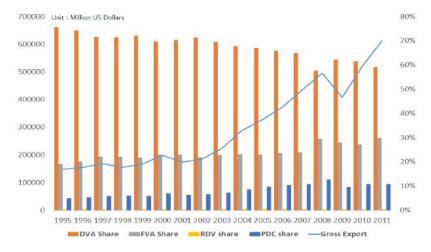
$$NRCA_{i}^{r} = \left(\frac{VAX_{F,i}^{r} + RVA_{F,i}^{r}}{\sum_{i=1}^{N} \left(VAX_{F,i}^{r} + RVA_{F,i}^{r}\right)}\right) \left(\frac{\sum_{r=1}^{G} \left(VAX_{F,i}^{r} + RVA_{F,i}^{r}\right)}{\sum_{r=1}^{G} \sum_{i=1}^{N} \left(VAX_{F,i}^{r} + RVA_{F,i}^{r}\right)}\right)^{-1}$$

- NRCA로 측정한 한국의 비교우위는 2000년 이후 크게 향상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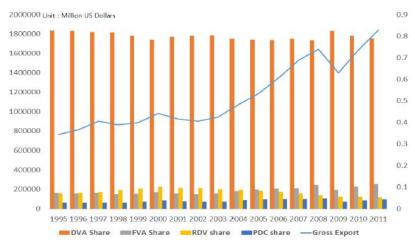
-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총수출 중 FVA는 큰 반면 RDV는 작게 나타남.

한국의 총수출 분해 결과



KIED

## 미국의 총수출 분해 결과



## 2) 토론 내용

- □ GVC 하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량을 파악해기 위해 필요한 국제투입산출 관계 자료원에 대한 정보 공유
- Made in the World라는 이름으로 OECD와 WTO가 협력하여 부가가치기준 무역(Trade in Value Added, TiVA)통계와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.
- 이와는 별개로 EU 위원회의 지원으로 좀 더 포괄적인 세계투입산출표(World Input-Output Database, WIOD)도 작성되어 공표되어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, 오늘 논의는 이의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임.
- GTAP(Global Trade Analysis Project)를 이용해 국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도 하나, 간헐적인 업데이트, 가장 최근 자료가 2007년 기준이므로 부가가치 교역자료를 시계열로 구축할 수 없음.
- GVC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남아 국가의 투입산출 관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함.

- JETRO의 자료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 포함하는 국가수가 적고 2008년이 가장 최근 자료라는 문제가 있어 급변하는 부가가치 교역을 분석하기는 매우 미흡함.

전문가품 토의자료

- UNCTAD의 투입산출표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하나 자료원이 아직 비공개이고, 관련 보고서에서 연도에 따라 집계방식이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어,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해야 볼 필요가 있음.
- 현재로서는 WIOD를 사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고 OECD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부가가치 교역을 시작하는 연구로 WIOD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임.
- □ 산업별, 수출대상 국가별 총수출을 부가가치 원천별로 분해한 DB 구축의 필요성 공유
- WIOD를 토대로 초점이 되는 대상국가(군)별 분석이 용이하도록 부가가치사슬 구조 파악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임.
- 기존에 널리 사용된 전방연계(forward-linkage) 방식 외에 후방연계(backward-linkage)을 함께 고려해야 함.
- 기존의 방식에서 국내 기여 부가가치 분이 후방연계까지 고려했을 때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해결됨.
- 각 부가가치 원천별로 분해했을 때, 결과적으로 나온 항들이 다시 총 수출로 합산 되도록 하여 정합성 문제를 해결함.
- 각 산업별 글로벌가치사슬구조 관련 지수 산출시 문제 되는 점들, 예컨대 VAX(총 수출 대비 부가가치수출 비중) 지수가 100%를 넘어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함.
- □ 세계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각국 총수출의 실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도를 측정한 논문들에 대한 토론
- Hummels, Yishii and Yi(2001)는 10개 OECD 국가들의 투입-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직 특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수출된 재화에서 수입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인 VS이라는

전문가풀 토의자료 | 20140926

- 지수를 정의하며, 이때 HYY(2001)가 제시하는 계산 방식들은 산업별로 분석할 경우 전방연계에 초점을 맞추게 됨.
- 양국 간 수출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로 인해 HYY(2001)에서는 계산되지 않았으나 후에 KWW(2014)가 VS 지수와 다른 관점에서 수직 특화를 표현하는 지수인 VS1을 제시하였는데, 이는 중간재 수출이 타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출에 사용된 정도를 측정함.
- Johnson & Noguera(2012)는 GTAP 데이터를 사용해 총 산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인 VAX 지수를 통해 생산의 분업화 정도를 측정함.
- 즉, 전 세계 투입-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 데이터에서 각 국의 국내 부가가치 기여분을 계산한 것임.
- KWW(2014)는 JN(2012)의 방법론을 일반화하여 총 수출을 부가가치 원천별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, 이는 JN(2012)에서 제시한 VAX 지수 계산 방법과 HYY(2001)에서 제시된 수직 특화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WWZ(2012)는 KWW(2014)의 방법에서 고려되지 않는 후방연계도 함께 고려하여 교역상대국, 산업별로도 정합성이 맞도록 총수출 분해 방법을 정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됨.
- □ 기존 논문에서 도출된 각종 지수와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
- 부가가치사슬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기존 방법론인 JN(2012), KWW(2014)의 방법론들의 경우 세부 산업이나 수출 대상국별 분석을 할 때 용이하지 않은 점들이 있음.
- 총량 수준의 무역 데이터를 부가가치의 원천을 기준으로 나누는 기존의 방법론들의 경우 전방 연계만 고려하는데, 이럴 경우, 부가가치의 원천 별로 나눠진 수출 데이터를 합산 할 때 총량 수준의 수출 데이터와 맞지 않는 문제 발생함.
- 이는 전방 연계 방식의 방법론의 경우 한 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분이 같은 국가의 다른 산업에서 온 부가가치 기여분을 무시하기 때문임.

- 후방연계 방식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이 같은 국가의 다른 산업에 대한 총수출에서의 부가가치 기여분을 무시함.
- 총량 수준의 무역 데이터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후방연관 관계를 모두 고려한 WWZ(2014)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산업 간 파급효과를 보다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.
- □ WWZ(2014) 방법론을 적용하여 총수출을 분해한 결과로서 총액 기준 수출은 수입된 중간재의 가치까지 포함되어 중복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양자 간 무역수지에서 왜곡 발생
-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면 2009년 기준 25% 감소함(1760억 달러에서 1310억 달러로 감소).
- 한국의 경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569억 달러에서 104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며, 한국의 부가가치가 중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됨을 의미함.
- 이렇게 총액 기준 수출은 국가 간의 무역수지를 실질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함.
- □ WWZ(2014) 방법론을 적용하여 총수출을 분해한 결과로서, 한국의 부가가치 무역구조에 대해 논의, 특히 한국의 주력수출산업인 전자산업의 총수출 분해결과에 대해 심층 토론
- 제조업 전체의 경우 한국의 제조업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의 기여분이 점차 낮아지며, 외국이 한국의 수출에 기여한 해외기여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- 자동차,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에서 외국의 수입중간재를 사용하는 등 해외기여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,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음.
- 한국 전자산업의 총수출과 부가가치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총수출에 비해 부가가치수출의 증가폭은 낮아,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하지만, 총수출 증가분에 비해 국내 생산 부가가치의 증가속도가 낮음.
- 전자산업에서 국내부가가치기여분이 감소하는 것은 전세계적인

- 분업화의 진전에 영향을 받은 동시에 생산과정에 있어서 대외의존도가 증가함을 암시한다고 판단됨.
- 한국 전자산업의 총수출에서 해외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 전자산업이 해외의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재수출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짐과 동시에 해외에 비해 국내 전자산업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기여가 낮음을 의미함.
- 다시 말해서 중간재교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국제적인 양상을 반영 하면서,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국내외 요인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.
- 한편, 국내 전자산업에서 해외로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부가가치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음.
- 생산단계에서 보다 원천을 담당하는 국가들의 경우 중간재 수출이 최종적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비중이 높은 반면, 한국은 이러한 경우가 적은 것으로 해석됨.
- 한국과 주요 국가와의 부가가치 교역을 살펴보면, 한국의 총수출에서 주요국의 부가가치 기여분을 최종재와 중간재로 나누어 볼 때, 중국 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며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 어듦이 나타남.
- □ 결론적으로 한국의 무역구조를 GVC 구조속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인
- 국제적 분업구조가 세분화된 산업의 경우 최종재 수출을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 분석은 왜곡의 우려가 있음.
- 전 세계 총생산 대비 총수출에서 최종재에 비해 중간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은 추세이며 한국의 수출구조 역시 최종재 보다는 중간재 비중이 높음.
- 총량 수준의 무역 데이터의 경우, 중복 계산(double counting)의 문제로 인해 국제가치사슬에서 하부구조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총 수출이 실제 부가가치 기여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.
-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산업의 제품에서 두드러지며, WTO나 OECD 등에서는 이러한 다국적 생산품(Made in the World)에 대한 연구를 최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.

-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무역자료에 기반하여 기존의 경쟁력 지수와 비교 분석하고, 부가가치 기준 실질실효환율을 활용하여 수직적 분업 환경에 있는 국가의 산업별 국제 경쟁력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도 있음.
- 정책적 관점에서 총액기준으로 막대한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높은 수입 중간재 비중과 실질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은 산업과 적은 수출실적에도 국내 부가가치 또는 고용창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중 어느 산업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임.
-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병행하여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국내산업의 수출에 대한 간접적 기여와 물류 등 서비스의 수출 기여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.